

SK, 울산에 <행복한 학교> 설립

SK가 울산에 <행복한 학교>를 세운다.

<행복한 학교>는 SK가 사교육비 절감과 인재 육성,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고안한 사회적기업으로 서울, 부산 및 대구에도 설립돼 있다.

신현철 SK사회적기업사업단장은 9월3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박맹우 울산시장, 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함께 재단법인 <울산 행복한 학교>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.

10월 발족하는 <행복한 학교>는 전국에서 4번째 세워지는 것으로, 2012년 3월부터 울산 소재 6개 초등학교의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을 진행한다.

국어, 수학, 영어 등 일반 교과목을 포함해 무용, 미술 등의 특기과목 교육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SK는 울산 <행복한 학교>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10억원을 출연했고, 울산시와 시교육청도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지원했다.

SK는 2016년까지 대상학교를 20개로 늘려 6000여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11/09/30>